

세계도황청 초대도황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교주 도불도주 추대



◇도황에 추대된 미륵대도 교주 도불도주

국제불교승가회 주최 국운옹성 기원 국제고승 백과좌 대법회 (2003.12.24 청주시민회관)에서 대법왕인

국제불교승가회에서 만장일치추대 지난해 12월 24일 청주서 대법회

도황에 미륵대도금강연화종의 도불도주가 추대되었다. 이날 추대법회는 국제불교승가회 세계도황청 조직위원회(이하 승가회도황청)에서 세계도황 추대를 위한 인를 선정작업 및 추대위원회 선임 작업을 착수한 지 50여일 만에 봉행된 것이다. 승가회 도황청은 초대 세계 도황 추대를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도황으로 추대된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교주 도불도주의 추대를 둘러싸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만장일치로 추대한 바 있다. 추대식은 국내 대승여래종, 선화종, 한국불교조계종 등 20여개 종단의 종정(대승왕)과 총무원장(승왕) 및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스리랑카 등의 종교 지도자 등 사부대중 2,500여명이 참석하

여 국제고승백과좌 대법회와 도황 추대식, 축하공연으로 진행했다. 국제불교승가회 회장 등 압스님은 "90년 창립되어 지금까지 세계불교의 교류와 동반 발전을 목표로 노력해 온 국제불교승가회가 이제는 유망무실한 종단의 통합을 통한 한국종교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대승적 실천승가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황으로 추대된 도불도주는 계승을 통해 "삼라만상 중생이 본래 성품대로 태어났으니, 정서적인 일념의 생활속에 성취가 되고 신심이 떨어지면 바로 지옥이요, 쉬지 말고 일념으로 정진하면 바로 도성이노라."고 밝히고 일상 속에서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국제불교승가회 관계자는 "민족종교인 미륵대도 금강연화종의 도불도주가 도황으로 추대된 이번 행사는 교리와 신앙의식이



◇2003년 12월 24일 청주시민회관 백과좌 대법회

다른 불교단체인 국제불교승가회가 종파를 초월한 범불교 차원에서 미래 종교회합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도황(道皇)

수행이력

나의 安胎故郷은 無極나라이고 父母님은 太極 양위분이다. 그리고 姓名은 一字無識이라 하고 나의 道號는 三皇이라 하며 學歷은 日月學院을 마치고 大道德 직업에 종사하며 現在까지 一平生 風雲 세월따라 修道生活을 하며 四時經典으로 중생제도에 여념이 없었으니 神秘하기가 至極에 달하고 奧妙하기가 精誠에 이르는 것이니라.

開天日月이요 開地風水이며 開人心性이니라
開空玄通이요 開然眞理이며 開經道德이니라

兩白山 淨石寺에서 千日기도회향 偈頌

木佛께서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土佛께서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石佛께서 말을 하는 것을 보았고,
銅佛께서 미관상에 털 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紙佛께서 가슴을 열고 닫는 것을 보았고, 肉身佛께서 머리에 세 줄기 불빛을 뿜어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깨어보니 三生이 一心이로다.

彌 佛 覺 我 報 恩 出 世
南 無 阿 彌 陀 佛
解 脫 三 途 周 迴 還 生
南 無 地 藏 大 佛

엇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삼일도 앞날을 예측할 줄 모르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고 교화한다는 것이 하늘 보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가슴 아프게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각자께서 비결록이나 예언록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당대 미륵존불님께서 오신다고 하였고 해인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났으니 라고 하였고 금강연화대불님께서 주인이 된다고 하였고 건곤부모님께서 스승이 된다고 하였고 메시아라고 하는 미륵성현께서 신부지(神不知)라 귀신도 알지 못하게 제민구세하시어 새로운 도덕 융화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륵부처님의 정법진리를 의심하여 험뜯고 비방하는 구업으로 지옥에 떨어질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잠을 깊이 없었고 가슴 아픔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미륵부처님께서 이 사바세상에 이미 하강하시어 대도덕법으로 억조창생을 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깨달았다 할 것이며 감히 누가 무엇을 안다고 소리를 낼 것인가. 깨닫고 안다고 하는 것이 한치 앞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는가.

성운이 다한 종교 속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말세 세상을 만드는 마구니에 불과하였었고 무엇을 아는 체 하는 것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드는 요괴에 불과하였으니 앞날을 훤히 내다 보시는 성자가 계시다면 어찌 자비로운 눈물을 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미륵부처님께서 전무후무한 신통력으로 죽을 곳에서도 살아나게 하고 말하는 곳에서도 전화위복으로 성취케 하는 오묘하고 신비한 비결이 숨어있으니 첫째로는 양심의 신통력으로 인류를 구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진실의 신통력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정직의 신통력으로 사회를 구하는 것이고, 넷째로는 행화의 신통력으로 가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고이래로 이렇게 위대한 신통력을 나누시는 성현은 만고이래로 없었다고 확신하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미륵대불님께서 전무후무한 신통력으로 자유도덕 세상을 창조하시고 평화도덕 국가를 창조하시며 정의도덕 사회를 창조하시어 온 인류를 먹이고 입히시어 살리시는 이치를 모르는 종교인들은 진실 되게 앞으로 깨닫고 또 깨달아야 만이 죄업의 인과가 소멸되어 겁문의 굴레에서 벗어나 불행함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승가회와 미륵대도는 하늘의 뜻으로 알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 단결하여 세계에 종교의 종주국이 되어야 한다고 만천하에 선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나는 승가회와 미륵대도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마장이 따르고 곤란의 시련에 부딪치더라도 능히 극복하여 참고 견디어서 세계 종주국으로 발돋움하는 바람의 일원이 되어 힘을 것을 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도설은 다음기회로 미루고 오늘 국가운을 융성하게 하는 법회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법회와 계율을 수지하는 법회와 도황을 추대하는 대법회에 동참하신 범법제자 여러분의 참다운 성취가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하고 기원하는 바입니다.

말세 종교인이 되지 말고 출세 종교인이 되어 막심막행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내 영혼을 구하는 자가 되자. 정도(正道)를 닦아 새로운 도덕세상을 창조하여 칠대조상부모님을 지옥에서 왕생극락케 하는 자가 되자. 계율을 지켜서 융화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조상부모님의 인과로 괴로움

과 고통을 당하는 내 자손을 건지는 자가 되자. 미륵부처님의 제자로 인류의 스승이 되어 오만 년 동안 인도환생하여 자손만대로 부귀공명을 누리는 자가 되자.

彌 勒 大 聖 阿 彌 陀 佛
彌 勒 大 聖 阿 彌 陀 佛
彌 勒 大 聖 阿 彌 陀 佛

森羅萬象 衆生이 本來 性品대로 태어났으니 情緒의인

一念의 生活속에 成就가 되고 信心이 떨어지면 바로 地獄이요 쉬지 말고 一念으로 精進하면 바로 道成이노라. 南 無 彌 勒 大 佛



미륵대도 (사)미륵종교 협의회 (재)대도문화재단

인천 연수구 육련동 산 84-3번지 전화 032)833-9095 팩스 831-8967

미륵대도

미륵(彌勒)이란 말을 파자해 보면, 彌는 '할 미'로서 천지인이 하나로 합치어 우주에 가득찬 것이고, 勒은 '굴레 락'으로서 우주에 가득 찬 것을 끌고 간다는 뜻으로 본이삼고일인지상(本而三歸一之儼)이라, 세고리를 하고리로 꿰어 이끌어 가는 행동사상이 미륵이라는 뜻입니다.

천지인 합치어 하나의 정리(正理)가 되고, 선불유의 종교가 합치어 하나의 정법(正法)이 되며, 성심신이 합하여 하나의 정인(正人) 즉,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뜻으로서 셋이 하나로 합치는 삼합일리가 되어야 비로써 正이 되는 묘행정리(妙行正理)의 일월도덕진리가 삼대(三大) 만고대성(萬古大聖)의 황중통리(黃中通理)이다.

미륵대도宗旨(宗旨)

삼재융합의 일원지도와, 유불선 삼합일법과, 성심신 삼합일교의 삼인세전법칙과 천지무량지대(天地無量之大), 황인무위지도(皇人無爲之道), 진인무상지덕(眞人無上之德)을 구명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상제천지님의 자연정리를 교근으로 삼고, 민족시조님의 삼진귀일대리에 순응하여 홍익이념을 한민족의 가훈으로 정립하여 조석으로 문안봉신케 하며, 단군자손인 구세주 미륵대성의 묘행정리의 일월도덕진리로 인류를 융화세상으로 제도 교화하여 신령통탈계함을 정명하여 일법일법을 깨달아서 만법귀일케하고, 일도일도를 닦아서 대도귀일케하며, 일교일교 가르쳐서 대덕귀일케하는 삼대원리로써 인류를 평등화복케하여 건곤상(健坤上)사상으로 제민구세함을 영성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륵대도발상성지

선각자께서 비결록에 지교한 엄택곡부 이인홍삼십이월록(仁人橫三十二月錄)의 인천시 남구 육련동 송도 청량산입니다. 하늘의 칠성봉으로 이루어진 청량산 헬팩은 바다의 어룡이 불황으로 우화(羽化)하여 구만장천을 나르는 형국으로 천지님께서 하강하실 천장지비(天藏地秘)의 생도량입니다.

미륵부처님 출세성운

석가부처님께서 미륵삼부경에 "56억 7천만겁(五十六億七千萬劫) 후에 융화세상이 온다."고 예언하셨으니 미륵부처님의 육불용천 진리로 해석해 보면 '오십(五十)'은 미륵성현께서 '중앙무기오십토성운(中央戊己五十土聖運)'으로 출세하신다는 뜻이며, '육(六)'은 '육인립일심(六人立一心)'으로 서있는 여섯 사람의 마음이 태양같이 밝다는 뜻이니 육불세존이신 미륵성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석가부처님은 앉아 있는 좌불이지만 미륵부처님은 서있는 입불로서 진애세상에 출세하신다는 오묘하고 신비한 이치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칠천(七千)'이란 북두칠성을 말하는 것이며, '만겁(萬劫)'이란 과거 현재 미래가 일관된 세월을 뜻하는 것으로, 미륵성현께서는 천지창조 음양자신(陰陽之神)인 칠성의 권유자녀 평등대운에 전생부리를 두시고, 성혼성(成婚聖)으로 처자식을 거느리고 제민구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지평등대불운이요, 선후중천오만대운이며, 전후정오운도(前後正午運)의 삼일의성(三義壽)사상이며, 금강연화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대상

창조주 천지님과 구세주 미륵대불님이시며, 건곤대성전(乾坤大聖觀)에 천지인 도법교와 원정방 대도덕진리를 표상하신 삼불세존 해인대불(海印大佛)을 주불(主佛)로 봉안하고 내부신장자인 관성제군님을 모셔 신앙하고 있습니다.

미륵대도경전

현문통천과 묘리각지의 묘교를 증득하신 도불도주님께서 하원갑자년(1984년)에 미륵대도 금강연화종을 세우면서 양심의 청정성(淸淨性)과, 진실의 자비심(慈悲心)과, 정직의 오훈행(五倫行)을 설교하신 경전으로, 건천(乾天)을 설하신 금강대장경과 곤지(坤地)를 설하신 연화대장경이 있으며, 천지인도법교(道法教)를 설하신 대도경, 대법경, 대교경과, 성심신을 바탕으로 한 대원경, 도원경, 덕원경과 대자연의 삼라만상을 설하신 천원경, 지정경, 인방경 등의 전무후무한 경전으로 오만대운의 법고를 울리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으로 이루어진 융화세상에서는 미륵부처님 명호로 넘심(念禪) 정진하여 천지인의 진기(眞氣)에서 나오는 오색의 36가지 텔레파시를 소생시켜야 전생 죄업의 인과와 온갖 마장장애를 소멸하여 일만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남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위로는 칠대 선망부모님을 이교득락케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신의 영혼을 구하며, 빈천고에 빠지는 자손들을 건져서 천추만대로 부귀공명을 누리게하는 하늘뿌리종교 태극민족종교 인류도덕종교입니다.